

3·1절 77주년 특집

일제, 승려신상 살살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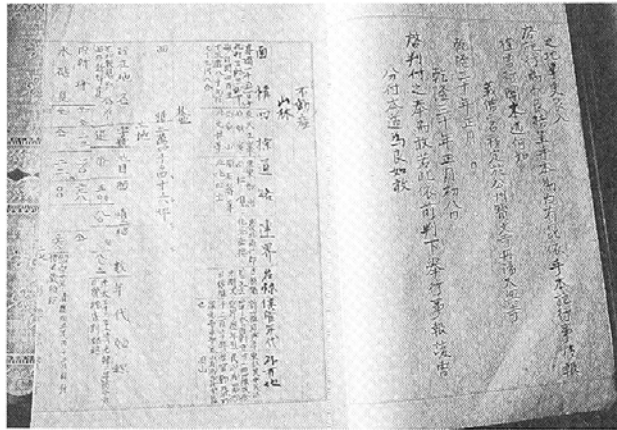
본지 독점취재

이종학씨 범주·백양·보현사 '조선총독부 출장조사서' 소장

사찰내력·승려 친족까지 파악... 불교 장악과정 연구자료

일제가 1911년 사찰령(寺制令)을 공포한 직후부터 전국의 본사급 사찰에서 수행중인 승려들의 개인신상을 포함한 사찰재산 소유지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독부의 어용지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이 직접 현지에서 조사하고 필사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 간기에 붙은 인쇄체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이라 명기됨).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은 (조선서류) (지지류) (문집류) (잡서류) 등 한국 역사관련 문집 160여점을 편찬했던 기구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산하 중추원을 통해 사찰령 공포 직후부터 전국 사찰 재산과 승려의 개인신상까지 파악했음이 드러났다. 사건은 1914년 범주사의 부동산을 조사한 내용.

사찰내의 '사찰과 관련한 조사 사항' 조사지방관의 '보은군 속리산 범주사' 조사일시, 조사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 있다. 아직 관련학자들의 해석과

고증은 거처지 않았으나 이 보고서는 1910년 강점 이후 일제의 불교계 장악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대사를 연구하는 해봉스님은 "중추원이 한국 역사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 편찬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찰과 승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벌였던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다"며 "이들 문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임연태 기자



백제사찰 지리불사기 단든 구세관음상은 현재 일본 법흥사 용전에 보관돼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국보·보물 등 많은 문화재의 연원이 고대 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 역사왜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보인 교토 광릉사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세계 최고의 걸작으로 평

가받는 신라 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고 역사 교과서는 물론 박물관·전시장 등의 안내판에도 그 연원이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없다.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으면서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법흥사의 '백제관음' 역시 이름은 물론 그 연원이 한국이라는 사찰자들의 기록

쓰촨 고분'에서도 한국 고대 고구려인이 만들었다는 안내문 또한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나라(奈良)지역 관광안내책자들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다카마쓰쓰촨 고분이라고만 적고 있다.

또 최근 東京都미술관에서 열린 '법흥사 금당벽화전'에서도 벽화를 그린 담자의 이름은

국보 '반가사유상' 등 '우리것' 3만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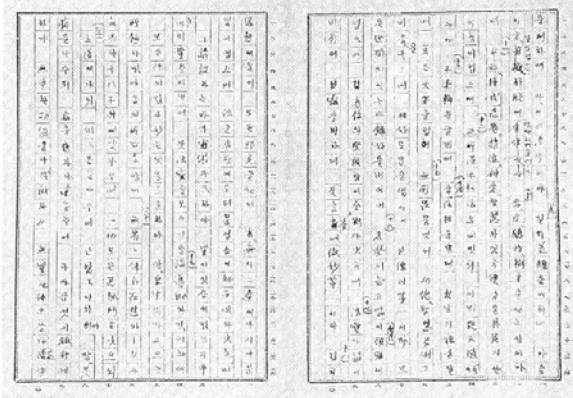
백제관음·담징벽화등, 한국문화재 은폐

이 있음에도 '우래를 알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법흥사 '구세관음상' '비단벽화 불개성' '천수국수장' 등 뛰어난 예술미를 자랑하는 이들 문화재 역시 그 어디에도 연원이 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없다.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법흥사 '석가삼존상'을 만든 백제인 지리불사를 일본의 책자들은 '중국인'으로 조작하고 있거나 국적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귀화인' 또는 '도래인(渡來人)'으로 기록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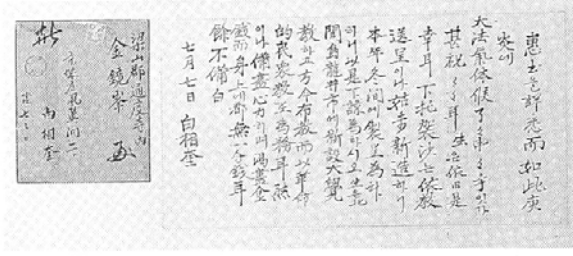
발견당시 일본고고학계 최대의 발견으로 평가됐던 아스카 역사공원에 소재한 '다카마

한명우 기자



만해스님 친필원고
용성스님 서간문 발췌

기미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중의 불교계 대표인 만해스님의 친필원고(위)와 용성스님이 경흥스님에게 보낸 친필 서간문(아래)이 최근 발견됐다. 두 스님의 친필은 오는 3월 6일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공개된다.



용성·만해스님 일대기 방송

불교TV가 3·1절 77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마련 3월1일 방송한다.

3·1운동과 관련된 전국 사찰의 현장을 직접 찾아 고증을 통해 불교의 활약상을 새롭게 발굴해 낸 '3·1운동과 불교(PD 김중현)'과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용성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한 '용성대선사(PD 장동홍)'가 바로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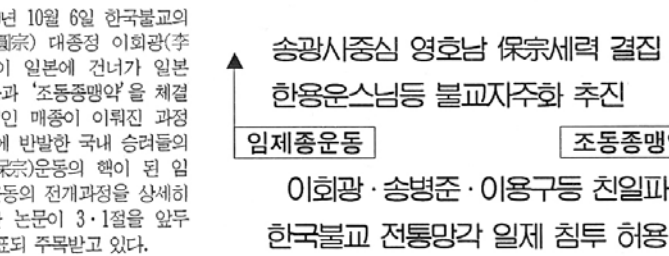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만해스님의 일대기를 연대별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만해 한운운(PD 최준호)'을 방송한다.

어린이 3·1 만세운동 재현

국단 '동쪽나라'는 3·1절을 기념해 3월1일 오전 10시~1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 1백여명이 참가하는 '놀이 솜아라, 겨레의 일-어린이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갖는다. 참가문의 263-8438.

임제종운동 불교개혁 근원

김광식씨 논문 '1910년대 불교계...' 매종·보종 과정 분석



1910년 10월 6일 한국불교의 원종(圓宗) 대종정 이회광(李晦光)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종종과 '조종종맹약'을 체결 실질적인 매종이 이뤄진 과정과 이에 반발한 국내 승려들의 보종(保宗)운동의 핵이 된 임제종운동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논문이 3·1절을 앞두고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광식씨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집에 발표한 '1910년대 불교계의 조종종맹약과 임제종운동'은 1910년 일제강점 전후로 한국불교계가 당면한 매종과 보종의 참여한 대립상황을 파헤쳤다. 김씨는 이회광이 일본에 건너가 체결한 조종종맹약을 '한국불교의 전통을 망각하고 시류에 편승하려는 일부 승려들이 자행한 매종행위'로 규정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조종종맹약의 단서는 이미 1895년 일본 승려의 건의로 이뤄진 승려토성 출입금지 해제령의 본질을 불교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즉 해제령 이후 불교계는 당시 흥미하고 있던 사회진화론의 논리하에 수용된 불교발전·진화 논리는 일제의 종교적 침투에 거의 무반응 상태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906년 설립된 불교연구회와 그 산하의 명진학교등 친일색채의 단체가 결성되고 1908년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교육년한, 요일, 수업시간, 자격. Lists courses for Buddhist Studies and their details.



김광식씨

송광사종심 영호남 保宗세력 결집

한용운스님등 불교지주화 추진

임제종운동

이회광·송병준·이용구등 친일파

한국불교 전통망각 일제 침투 허용

조종종맹약

3월 6일 설립된 불교 거대 종단인 원종의 교문으로 일본 조종종의 승려 무전범지(武田範之)가 추대된 지 등이 1910년의 조종종맹약을 일대시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활약했던 중심인물로 이회광 원종대종사와 친일파 이용구, 송병준 등을 꼽았다.

한편 김씨는 영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임제종운동의 핵심인물로 박헌영, 한용운스님 등을 꼽고 그들의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1910년 10월 5일(음력) 무등산 중심사에서 첫번째 규탄대회가 있었으며 1911년 1월 5일에는 송광

사에서 다시 규탄대회가 열렸다. 특히 송광사 대회에서는 임제종 및 그 기관인 중추원을 설립시켰는데 이후 임제종을 범어사·통도사·해인사를 3본산으로 정하는 등 일본불교에 반대하는 국내 불교세력의 집결체가 됐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특히 1912년 5월 26일에는 반대운동이 중앙으로까지 진출해, 임제종중앙포교당을 건립한 것이 임제종운동의 극치였다고 김씨는 밝혔다.

일제의 억압이 본격화되며 1912년 6월21일 임제종 간판이 철거된 이후에도 한용운스님을 중심으로 '조선불교회' '불교동맹회' 등이 조직돼 움직인 것은 자주적인 불교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게 김씨의 결론이다.

"임제종운동은 이후 불교계의 개혁운동 및 민족운동의 정신적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

Advertisement for '2천만에 깨달음을' (Enlightenment for 20 million) featuring '현대불교신문' (Modern Buddhist New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보살사상 경구선집' (Bosalsasang Kyungu Sunjeom) edited by Sunwoo, featuring a list of conten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해동불교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Haedong Buddhist University New Student Recruitment) for the 96th academic year, including a list of courses and applica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佛敎思想講座' (Buddhist Thought Lecture) and '華嚴經大講座' (Hwaranggyeong Dae-kyeong), including lecture topic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institution.